실직자·취업준비생·독거노인 '혼자 쇠는 설'

"가족 만날 꿈꾸며 외로움 달래요"

취업준비생 "꼭 합격해서 고향에 가야죠"

독거노인 "손주 얼굴 보는게 마지막 소망"

실업자 "내년엔 일자리 찾아 함께 쇠겠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는 취업준비생, 실업자, 편모·편부 가정, 독거노인 등은 평소보다 더 외롭다. 찾아갈 고향, 찾아올 가족도 없이 혼자 연휴를 보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에는 갖가지 사연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의 설은 쓸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설은 다시 한번 '희망'을 품어보는 기회다. 비록 지금은 외롭고 지쳐있더라도 언젠가는 그토록 바라던 소망을 이루고,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들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합격을 꿈꾸며**=전남대 경영대 뒤편 골목의 한 고시원에서 고시공부를 하고 있는 이모(28)씨는 3년째 혼자서 설을 보낸다. 가족, 친지들을 보기 위해 고향인 순천으로 내려가고 싶지만, 5년 동안 사법시험에 잇따라 떨어진 뒤, 가족들 볼 낯이 없다는 것이다.

이씨는 "명절 연휴에 가장 큰 고민은 식사 해결이며, 지난해 설 당일에는 대부분 식당이 휴업해 인근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사먹었다"며 "어머니가 해 주시는 떡국이 가장 맛있는데 먹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말 사법고시 1차에 이어 올해 안에 2차까지 합격해 내년 설에는 고향마을 어귀에 합격 플래카드를 내걸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가족과 함께 했으면**=지난해 부인과 이혼하고 아파트에 사는 임모(41·북구 운암동)씨는 설 때 혼자 보내는 것이 처음이다. 임씨의 부모는 노환으로 3년 전 돌아가셨고, 형이 영암에 살고 있지만, 눈치가 보여 가지 않기로 했다. 임씨는 "집에서 TV를 보며 연휴를 보낼 것"이라며 "연휴 하루 전에 마트에 들러 즉석만두 등 간식거리로 3일을 보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임씨는 "내년에는 이혼한 아내와 살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설을 보내고 싶다"는 희망을 전했다.

◇**독거노인의 '설'**=광주시 서구 양동 단칸방에서 정부보조금으로 근근이 살고 있는 정모(75) 할머니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가 됐다. 남편과의 사이에 남매가 있지만, 연락을 안 한지 5년이 넘었고, 딱히 함께 보낼 친척도 없다. 고질적인 관절염으로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여의치 않아 설 연휴도 평소처럼 방 안에서 보낼 예정이다.

정 할머니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살기 어려웠지만 서로 얼굴만 봐도 좋은 때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 남은 것은 병들고 외로운 몸뚱이뿐"이라고 말했다.

가끔 용돈을 벌기위해 폐지를 주우러 다닌다는 정 할머니는 "인근 복지관에서 반찬을 배달해주는데 설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나올 것"이라며 "내년 설은 어렵더라도 아이들 얼굴을 봤으면 하는 것이 마지막 소망"이라고 덧붙였다.

◇**일감 많았으면**=2년 전 모든 재산을 쏟아부은 식당을 운영난으로 문닫고 부인과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 박모(53)씨도 다가오는 설이 반갑지 않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박씨에게, 연휴는 곧 '수입이 없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내 한 여관에서 지내고 있는 박씨는 "간혹 가족이 그립기도 하고, 아이들 얼굴이라고도 볼까하는 생각이 들지만 내 처지를 생각하니 그럴 수 없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씨는 올해 목표를 '안정된 일자리'로 정했다. 그는 "2~3년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고 싶은 생각 뿐이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설, 老母 뵈러 왔다가…

화순서 일가족 4명 연탄가스 중독 1명 중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 산소에 다녀오기 위해 노모(老母)의 집을 찾은 큰아들 부부 등 일가족 4명이 연탄가스에 중독돼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11일 오전 10시30분께 화순군 이양면에 사는 송모(여·80)씨의 집 별채(면적 9.9㎡)에서 송씨와 큰아들 정모(60·서울시)·큰며느리(54)·둘째아들(52·서울시) 등 4명이 연탄가스에 중독돼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것을 송씨의 조카인 마을 이장(70)이 발견, 경찰과 119 구조대에 신고했다.

송씨 등 4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정씨 부부 등 3명은 치료를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해 퇴원했다. 하지만 송씨는 11일 오후 7시 현재 의식불명상태다.

마을 이장은 경찰에서 "송씨 큰아들 내외 등 3명이 전날 우리집에서 놀고 갔는데, 연락이 안 돼 가봤더니 입에 거품을 문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설을 앞두고 정씨 부부 등 3명은 전날 어머니 혼자 사는 고향집을 찾았으며, 이날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 산소가 있는 국립 대전 현충원에 가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송씨는 지난해 3월 남편과 사별한 뒤 고향에서 혼자 살아왔으며 지난 1년여 동안 남편 산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수급대상자인 송씨는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기름보일러가 설치된 안채가 아닌 별채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 안에서 연탄가스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마을 이장의 진술에 따라 이들이 좁은 방에서 함께 자다 연탄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여수서 차량 추락 1명 숨져

11일 오전 7시40분께 여수시 봉계동 둔덕삼거리에서 석창사거리 방향으로 달리던 88다 95××호 갤로퍼 승용차(운전자 김모씨·41)가 도로 옆 난간을 들이받은 뒤 2.5m 아래 하천으로 추락, 김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중국산 조기 목포산 참조기로

원산지 속여서 판매

광주·전남 9곳 적발

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20일~2월10일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59개 업체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형마트의 수산물 코너 입주업체인 A수산은 중국산 조기를 10~15마리씩 포장하면서 원산지(목포)가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뒤 목포 참조기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다.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D식품은 영국에서 수입한 냉동고등어 197t(6억6천만원 상당)을 노르웨이 산으로 표시, 냉동고등어 가공업체에 공급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8개 수입·가공업체들과 마트 등은 대부분 오징어, 갈치 등 수산물을 낱개로 묶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양식장 동료 찔러

40대 살인미수 영장

목포해양경찰은 11일 양식장에서 일하는 동료를 흉기로 찌른 손모(41)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손씨는 10일 오전 11시50분께 영암군 대불산단 인근 도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 동료 박모(41)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박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사건 당일 새벽 섬을 빠져나가려고 진도군 의신면 선착장에서 양식장 주인 장모(47)씨의 관리선을 타고 달아났다가 목포에서 주인과 박씨에게 붙잡혀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해경은 전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일본학생들 가오리연 만들기 설 연휴를 앞둔 11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 언어교육원에서 '전남대 국제겨울 학교'에 참가중인 일본 대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가오리연을 만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매형 신분증 위조 5억 빼돌린 40대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6단독 이재희 부장판사는 11일 매형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최모(43)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일부 합의했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를 변상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21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모 우체국에서 미리 위조한 매형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매형의 예금계좌에서 4억650여만원을 인출하고, 매형 명의의 보험계약을 담보로 1억5천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사이트에게 알게된 신분증 위조범을 통해 40만원을 주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통장과 인감을 잃어버렸다"며 매형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 받은 뒤 불법 인출과 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결별 동거남녀 서로 "상대 처벌" 신고

쌍나팔

○…15년이라는 나이차를 극복하고 동거에 들어간 남녀가 결별과정에서 서로 상대를 처벌해 달라는 신고를 해 눈총.

○…1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이모(35)씨가 "내 옷을 가져간 동거녀 전모(여·50)씨를 처벌해달라"고 신고한데 이어 10일에는 전씨가 "동거남이 동전과 청바지 등을 훔쳐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전씨는 전날 경찰에서 "동거남이 지난 2일 광주시 동구 학동의 한 원룸에서 동전 3만원과 청바지 등 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갔다"며 처벌을 촉구.

○…이에 대해 이씨는 "동거녀가 내 옷과 이불을 몽땅 가져가는 바람에 전씨의 옷을 입고 집을 나왔을 뿐인데, 내가 동거녀를 신고한데 앙심을 품고 허위신고를 했다"며 분통.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